“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 전체 교사회의가 오후 1시 30분에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 기독교대안학교 연맹 소속 이야기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25일(화)에 방문하십니다.
- 성서일기 진도가 출애굽기로 바뀌었습니다.
- 신랑 최재윤 군과 신부 윤민정(윤희철 이혜경 집사) 양의 결혼식이 30일(일) 오후 5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신촌)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장미라 집사 (생일)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12 호
2025년 3월 2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태어나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해갈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혁신 도시가 조성되어서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를 생각하고 준비해간 것입니다.

아들은 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도 하러 가고, 마트도 가고, 주일에는 근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온답니다. 비도 온답니다. 운동이 끝나면 어두운 밤이랍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 큰 아들에게 매일 전화로 확인할 수도 없고.. 마음만 졸입니다. 잘 마련해줬다고 생각했던 자전거에 원망의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다 문득, 평생을 자전거로 출퇴근 하셨던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빠는 비오는 날 어떻게 출근하셨지? 눈 올 때는 어떻게 집에 오셨더라..'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갑니다. 짙은 회색 우비를 입고 집에 오시던 아버지. 매서운 추위를 대비해 자전거 손잡이에 붙어 있던 두툼한 털 싸개. 그리고 무엇보다 털모자에 겨울 마스크를 쓰신 아버지의 빨갛게 얼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괜스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들에 대해선 비를 맞으면 어쩌나. 눈길에 미끄러지면 어쩌나 걱정 투성이면서 딸이었던 시절. 자전거 타시는 아버지의 출퇴근길은 한 번도 걱정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업단지 안에 있는 회사로, 자전거 도로라고는 일절 없는 위험천만한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고 가셨던 아버지를 한 번도 안쓰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엄청난 책임감이 아버지가 자전거 페달을 밟는 이유셨겠지요. 평생을 매일 반복되는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신 이유셨겠지요. 아버지란 그런 사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러한데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책상 앞에 있는 책 한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집을 떠났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지만, 책 표지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가장 환한 빛을 내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부랑자보다 못한 아들을 따스한 품에 두 팔 벌려 안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과 집을 버리고 간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맞아드리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로써 책임을 다 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이기에 다시 품에 안고 괜찮다. 다 괜찮다 다독이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죄의 빛과 원망의 빛은 단 한 가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에 찌들어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분의 마음이 결코 용납할 수 없으셔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엄청난 책임감이며 지극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거부함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아차렸을까요? 얼마나 알아드렸을까요? 지금도 묵묵히 아버지의 자리에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드리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드리는 우리면 참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
<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16, 50 / 85
기도 : 전경희 집사
성경 : 마태복음 26장
제목 : 예수께서 잡히시다

분량과 내용이 다양해서 장소에 따라 문단 구분 함.
1-16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

해석: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자세)이 다양하다.
1) 죽이려고 함: 대제사장들과 장로
2) 사랑하는 사람: 향유옥합을 예수께 부어드림.
3) 이용하는 사람: 예수를 넘겨줌.
적용: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지 말자.

17-29 성 안에 이름 없는 자의 집(마지막 만찬)
빵과 잔은 예수의 몸과 피로 축복과 죄사함의 언약을 말한다.
해석: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적용: 공동체의 식사 때마다 예수님의 축복과 죄사함을 기억하자.

30-46 올리브산, 겟세마네
해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 순종이 있어야 한다.
적용: 순종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자.

57-75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해석: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신앙이 어두워지면 복음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
적용: 자신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생각하자.

30대가 되었습니다

2025년은 1996년생인 제가 세는 나이로 30세가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제가 30대가 되고 난 후의 약간의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약간이라고 말했듯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미 20대 후반부터 소화가 전보다 좀 안 된다거나, 잠을 설치면 며칠이 피곤하다던가, 회복이 더디다든가 하는 그것들을 이미 겪고 있었기에 30살이 된다고 극적으로 더 악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 어른들이 보시기에 참 배부른 소리 한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적으로는 작지만 큰 변화가 있는데 전에 비해 조금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좋게 말하면 흘러가는 대로 안 좋게 말하면 대충 살아왔습니다. 딱히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욕망이 없기에 열정도 없는 무미건조한 삶, 당시에는 무언가에 몰두하여 불같이 살아가고 싶어도 잘 안되고 그나마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약간의 귀찮음으로 포기해버리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30대가 되어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니 조금은 아쉽고 무언가 비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저는 지난 일에 최대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고 그 후회와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괴롭힌다면, 앞으로 있을 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이상론적인 이야기지만 인지하고 있으면 꽤 잘됩니다. 짧게나마 허락된 세상살이에서 좋은 것만 보고 느끼고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이 시간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요즘 전보다는 조금 더 욕구에 충실해져서 살고 있습니다. 놓았던 기타를 다시 치고, 먹고 싶은 요리가 있으면 직접 해 먹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단순하지만, 이것만으로 삶이 꽤 활력이 생겼음을 느낍니다.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불태우다 번아웃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데 저는 반대로 계속 놀다가 이제야 좀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는 잔잔하고 사색에 잠기는 10년이었다면 30대의 10년은 조금 일렁이고 행동하는 10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젊은이사랑방 권영우 집사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마태복음 11 : 28-30	인도자
*예배의 찬송	14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에베소서 1 : 7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90, 295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이사야서 55 : 1 - 13	설교자
성가대 찬양	151	그루터기사랑방
설 교	" 은혜로 부르시는 초청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46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10(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윤호중 하경임 / 봉헌위원 : 서병욱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언약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감사의 삶을 더욱 채워주십시오. 아멘

은혜로 부르시는 초청

은혜의 초청. 목마른 사람, 돈이 없는 사람도 모두 와서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와서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그런 형편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핵심.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우시는 언약인데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지킬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반응. 은혜 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감사하려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의 회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베풂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회개와 용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전선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서울 반포에 가서 '슈퍼거북 슈퍼토끼'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이번 학기 첫 나들이였는데 노란차 안에서는 노래도 듣고 각자가 좋아하는 놀이, 동물, 음식, 색깔 등을 맞추는 퀴즈도 내며 지루할 틈 없이 오고갔습니다. 뮤지컬 공연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꾸러기들은 맨 앞줄에 앉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타고난 대로 행복을 찾아 살아가게 된 토끼 재빨라와 거북이 꾸물이를 응원했습니다. 재미있는 공연을 함께 보는 것은 참 근사했고 공연을 본 뒤에 맛있는 밥을 사먹은 것도 좋았습니다.

하온이 생일잔치에 선물할 생일카드를 만들고, 교장선생님 댁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체육시간에는 스트레칭을 한 후 '쥐와 고양이' 놀이도 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큰 블록과 의자, 무지개매트, 온갖 장난감을 다 꺼내어놓고 놀았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다섯 명이 다함께 평화롭게 포켓몬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서로 제법 친숙해졌구나 싶어 대견했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날씨 변화가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안전하게 등하교 해서 넘 행복 했습니다. 그 이후엔 날씨가 좋았는데 눈이 녹아서 질퍽거려 넘어져 옷이 젖는 경우도 있었고, 미세먼지가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놀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바깥에서 올망졸망 모여서 노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올 해는 목요일날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별로 의자를 올리고, 새로 산 청소기도 돌리고, 책상보 털고 , 휴지통 비우러 가고, 바깥 신발장과 동그라미 현관 청소하고, 공주방 청소하고~ 아이들이 손이 척척 꼼꼼하게 진행 되는걸 보니 기분이 뿌듯합니다.

LTSS 시간은 올해 새롭게 개설된 수업으로서 경청하고, 생각하고, 발표도 하는 주제 창구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업을 했는데 3주간 하는 LTSS 주제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관계도'를 그리고 작성하여 가족 관계와 이름을 알고 호칭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날씨가 좋아 더 재미나고 활기찬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겨울의 자취가 희미해져 갑니다. 일교차가 여전히 크긴 하지만 땅이 조금씩 단단히 말라가는 것을 느끼며, 멋쟁이들은 기본생활을 지키자는 생활 표어로 이번 주를 지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크고 작은 이벤트로 가득했는데요, 화요일 저녁에는 첫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생일을 맞이한 멋쟁이들을 위해 친교부가 열심히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을 한껏 보냈습니다. 공동심화학습에서는 <중독> 주제로 멋쟁이들이 각각 약물 중독, 일 중독 등 주제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린수업에서는 새천년 건강 체조 학년별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확한 동작, 소품, 다채로운 복장까지 고려하여 눈이 휘둥그레질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기에서의 상금은 차후 학년별 여행 때에 간식비로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보러 외출했습니다. 어떤 고마운 분의 소개를 통해 좋은 자리에서 명성 높은 뮤지컬을 관람했고, 커다란 감명을 받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멋쟁이들이 계속해서 뮤지컬 대사와 몸동작을 따라했던 것은 덤입니다.

4학년이 미국에 해외탐방을 떠날 날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그루터기사랑방으로 함께 모여 산지 17년째다. 17년의 세월이면 한 인간이 태어나 청소년기를 지나 곧 있으면 성년이 되는 기간이다. 그루터기에서 이 시간을 견디며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지내왔다. 그동안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왔을까?

함께 살다보니 모든 면에서 서로 다름을 경험한다. 이 다름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성장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름을 수용하지 못해 생긴 갈등은 분열을 일으키고 반면 다름을 인정하면 성장과 일치를 이루어낸다. 또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른 체 넘어갈 수 없음을 경험한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형제의 어려움과 고통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애써 외면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이 왔고 그런 고통이 오히려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으나 그러지 못할 때는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경험했다.

올해 첫 방모임이 시작되었다. 방모임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 잘 알게 해준다. 가령,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성서일기를 나누는 중에는 같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할 수 있고 삶의 성찰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경청이 꼭 필요하다. 방모임은 나를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지체들의 나눔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다. 끝까지 인내하고 듣다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떡여 질 때가 있다. 서로의 다름을 잘 이해할 때 비로소 지체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싹트는 것 같다.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의 방모임이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형제애로 가득찬 시간이 되면 좋겠다. 방모임을 통해 삶의 통찰력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더욱 성숙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루터기사랑방 박태규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478, 88
성 경 : 고린도전서 3:1-9
말 씀 :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전면적인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여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휴전 협정 후 두 달 만에 벌어진 큰 규모의 공습에 국제사회가 비판하며 나섰습니다. 오로지 힘의 논리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지금의 현실이 슬프고 버겁습니다. 서로 약속을 준수하고, 진정한 평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학교 1기를 위해>
한공협에서 주최하는 공동체학교 1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방법으로서 공동체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고, 지속적으로 공동체 운동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위한 기도>
* 공동체 안에 아픈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사랑방 성서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때 아닌 폭설로 인해 많은 눈이 내렸고 반짝 꽃샘 추위도 있어 봄이 느리게 오나 싶었는데 따뜻한 봄볕과 함께 공동체 마당에 새싹들이 올라왔습니다.

밭에는 1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비료도 뿌리고 묵은 땅도 갈면서 새로운 작물들을 심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산수유나무를 시작해서 공동체는 꽃 천지가 될 것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며 마음도 새롭게 가져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